

“아이가 없네”...0~4세 유아인구 ‘6.25 직후’ 보다 낮아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0~4세 인구 197만명 ‘첫 200만명대 ↓’

다문화 가구 1만6000가구 늘어...‘베트남·중국계 결혼이민자’ 다수

지난해 우리나라 내국인 0~4세 인구 수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55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0세 이상 인구는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었다.

통계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집계’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 0~4세 인구는 2018년 197만명으로 지난해 208만명에 비해 11만명 줄었다. 0~4세 인구가 200만명으로 떨어진 것은 통계 집계 후 처음이며 이는 사상 최저치에 해당한다.

또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베트남·중국계 결혼이민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4세 인구는 1955년 338만명에서 시작해 1966년 448만명으로 정

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들어 올해 처음으로 200만명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번씩 실시하며 1950년 자료는 한국전쟁 당시 소실됐다. 0~4세 인구 수는 연별별 인구 통계가 시작된 시점인 한국전쟁 직후(1955년) 이후 최저인 셈이다.

반면 70세 이상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고령 인구는 1995년 160만명에서 매 5년마다 늘

어 올해 506만명을 기록했다. 고령 인구가 500만을 넘는 것 역시 집계 후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2인 가구의 비율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일반가구 중 1인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18년 29.3%로 늘어 모든 가구원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인 또는 2인 가구 비중도 2000년 34.6%에서 지난해 56.5%로 꾸준히 늘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사는 다문화 가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에 사는 다문화 가구는 33만 가구, 가구원은 101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가구의 1.7%,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한다. 가구 수는 전년에 비해 1만6000가구 늘었고 가구원 수는 5만명 증가했다.

가구 구성별로는 내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가구가 35.9%로 가장 많았다. 결혼이민자 원 국적 비중은 베트남 23.9%, 한국계 중국 22.0%, 중국 19.3% 순서로 높았다.

2023년 나랏빚 사상 첫 1000조 원 ‘돌파’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로 2023년 나라살림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 서고 나랏빚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전략을 세우고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재정수입·지출 전망과 재정수지·국가채무전망 등을 담고 있다.

재정지출 규모를 보면 내년 나라살림은 513조5000억원을 기록한 뒤 3년 뒤인 2023년 604조원으로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재정증가 속도와 비교할 때 빠른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총지출이 100조 원대를 넘어선 뒤 200조원(2005년)대를 넘기까지 4년이 걸렸다. 이어 2005년 200조원에서 2011년 300조원까지는 6년이 걸렸다. 또다시 6년 뒤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 400조원을 넘었다. 총지출이 100조원 가량 증가하는데 걸린 기간이 평균 4~6년인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이같은 공식은 깨졌다. 문재인 정부 첫 해 428조8000억원이던 총지출 규모는 2019년 469조6000억원으로 경총된 뒤 2020년 500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총지출이 400조원을 넘긴지 3년 만에 100조원 이상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재정계획상 국가채무는 내년 805조5000억원에서 2022년 900조원을 넘어선 뒤 1년 뒤 2023년 또다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마트 일렉트로맨 의류건조기 20만원대 선보여 29일 오전 이마트 상수점 가전매장에서 모델들이 일렉트로맨 의류 건조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3kg 소용량 일렉트로맨 의류 건조기를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으로 20만원대에 출시한다.

삼성전자 ‘갤럭시폴드’ 9월6일 국내 출시...‘극소량 한정판매’

결함 발생 전량 수거 후 약 1달만...초도 물량 약 3만대 예상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폰 ‘갤럭시폴드’가 오는 9월6일 국내에서 날개를 펼친다. 지난 4월26일 미국에서 4G LTE 모델로 출시하기로 한 것이 취소된 후 약 1달 만에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될 것이라 전망이다.

29일 압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3사는 오는 9월6일 갤럭시폴드를 국내에 출시한다. 당초 추석 이후 9월 중순이나 하순쯤 출시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했는데 대폭 앞당겨진 것이다.



이날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가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갤럭시폴드를 처음으로 대중이 만질 수 있도록 실물을 공개한다는 방침이었는데, 같은날 국내 출시까지 이어지도록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출시가 되더라도 수량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고가 약 230만~240만원대이고 결함을 수정한 제품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디지털프라자와 대형 소매점 위주로 소량만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초도 물량을 약 3만대로 예상한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수십만대에서 100만대 이상 풀리는 것과 비교할 때

광장지 적은 양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브루클린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갤럭시폴드 출시와 관련해 “초도 물량은 당초 예정됐던 100만대보다도 적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함 제품을 일부 파기하면서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화면보호막이 벗겨지면서 디스플레이 결함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갤럭시폴드에 탑재된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Infinity Flex Display) 최상단 화면 보호막을 베젤 아래까지 연장해 화면 전체를 덮었다.

‘www.1234.kr’...2020년 4월부터 ‘숫자 도메인’ 나온다

오는 2020년 4월 부터 ‘www.1234.kr’과 같이 숫자를 사용한 2단계 도메인을 쓸 수 있게 된다. 2단계 도메인은 ‘www.1234.kr’처럼 ‘co’, ‘go’, ‘or’, ‘re’와 같은 구분자가 없는 주소 체계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기업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도메인으로 쓸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kr’로 끝나는 국가도메

인은 누구나 2단계 또는 3단계 도메인 주소로 등록하고 있으나,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은 3단계만 허용돼 왔다.

‘www.1234.co.kr’은 가능하지만 ‘www.1234.kr’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각종 광고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숫자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기업이 전화번호 등의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

해 홍보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2단계 숫자도메인 등록은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해 오는 2020년 4월1일 시작될 예정이다. 숫자와 하이픈(-) 조합으로 3자에서 63자 범위 안에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등록이 제한된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